



농촌진흥청, 과수 폭염·가뭄 피해 예방 기술지원 강화

-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4일 장수군 햇빛차단망 설치 과수원 방문
- 과일 커지는 시기 햇볕데임 피해 등 생육·현장 대응 상황 살펴
- 폭염·가뭄 등 이상기상 대비 농가 현장 대응력 강화 강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8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있는 햇빛차단망 설치 사과 과수원을 찾아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열매가 커지는 시기, 고온과 가뭄으로 햇볕데임(일소)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 기술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김 원장은 현장에서 햇볕데임 발생 현황과 햇빛차단망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고온 피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대상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햇볕데임은 사과가 커지는 시기 32도(℃) 이상 고온이 지속될 때, 열매 표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 열매 세포가 손상되는 현상이다. 이는 탄저병 같은 2차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매의 표면 온도를 낮추는 관리가 중요하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보급사업의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기술을 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군, 약 15헥타르(ha) 규모 과수원에 보급해 추진 중이다.

햇빛차단망은 수동 조작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제어시스템을 적

용해 기상 상황에 따라 자동 작동이 가능하고, 과수원 내부 온도를 약 3도 (℃) 정도 낮춰 햇볕데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우박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설치 과수원 대비 평균 햇볕데임 피해는 34%, 노동력은 37%, 우박 피해는 37%, 조류 피해는 29% 줄어 이상기상 대응력과 노동력 절감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열매가 커지는 비대기 고온 대응이 과일 품질을 결정짓고, 농가 소득과도 직결된다.”라며, “다목적 햇빛차단망 같은 신기술을 지속해서 발굴·보급해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여름철 폭염 대응 현장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남수 (063-238-6400)
		담당자	지도사	장상현 (063-238-643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여름철 폭염 대응 현장 방문 계획안**

- ☐ 일 시: 2026. 8. 24.(월), 13:30 ~
-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593-36
- ☐ 참 석 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기술지원과장,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등 10여 명
- ☐ 주요내용: 여름철 폭염, 가뭄 대응 과원 관리 현장점검 등
- ☐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2:30~13:30	60	◦ 이 동(→ 전북 장수군)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593-36	
13:30~14:00	30	◦ 여름철 사과과원 관리 현장방문 ◦ 현장애로사항 청취	<현장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